"마음 심소 공부하자"

각묵 스님, 김해 보리원서 3월 22일부터 총 10강 진행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이 '마음의 심소(心所)'에 대한 강의를 개최한다.

경남 김해 장유 보리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3월 22일~5월 24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총 10회 진행된다.

교재는 〈아비담마 길라잡이(상)〉이다.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상좌부 불교를 대표하는 교리서 〈아비담마타상가하〉를 옮긴 것으로, 마음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각묵 스님은 이번 강의를 통해 마음(心, citta)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각묵 스님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는 '심학(心學)'이라 불리기도 했다"며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마음(心, citta)'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도 드물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상좌부 불교는 부처님 원음을 고스란히 전승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적통성을 자부한다. 또한 아비담마의 엄정한 교학체계를 통해 이 마음을 89가지로 상세하게 해체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문의 (055)321-8579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호국 100년史 돌아보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호국 불교 100년사를 돌아보는 '부산불교100년사'를 발간한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3월 1일 범어사 상마마을 항일운동 유공비 앞에서 〈부산불교100년사〉 원만 발간 기념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박대성 사무총장, 부산불교108인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은 "독립운동을 위해 몸 바친 불교 호국사상을 새롭게 조망하고,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한다"며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부산불교100년사〉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1일까지 부산불교 100년 역사를 담은 책이다.

하성미 기자

"마음공부,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2월 28일 유치원 기공식

지상 2층 · 지하 2층 규모
오는 7월 31일 완공 예정
대행 스님 유지 따른 인재불사
"마음법 널리 펴 지구촌 밝아지길"

부산 한마음선원은 2월 28일 경내 유치원 신축부지 앞에서 기공식을 거행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유치원 교육도량의 첫 삽을 들었다. 이에 부산 한마음선원은 '마음 도리를 아는 참된 인재 육성'에 더욱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부산 한마음선원(지원장 혜도)은 2월 28일 경내 유치원 신축부지 앞에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유치원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번 유치원 불사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종합해 배우면 기술 · 과학 분야에서 '첨단을 걷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는 대행 큰스님의 유지(遺志)를 잇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건축 면적은 1992㎡(600평) 연면적 8067㎡(2450평)으로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이며, 완공은 7월 31일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은 '화합재'를 시작으로 불교도의 노래 및 한마음선원가 합창, 유치원 건립 경과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사부대중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통해 인재불사의 방향과 원력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유치원 건립 불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의 기념사 및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의 인사말, 박해일 신도회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혜수 스님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큰스님 가르침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며 "큰스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심성을 키워야 앞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로 보면 유치원 불사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인재불사요, 인성불사, 마음불사다. 마음공부를 위한 불사 터에서 세상을 향해 밝은 빛을 비추는 아이들이 자라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 한마음선원 지원장 혜도 스님은 "큰스님께선 마음법을 널리 펴서 지구촌 전체가 밝아지도록 염원하셨다. 이를 위해 부산지원은 인재불사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건립 불사가 시급히 진행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참석한 사부대중의 염원이 함께 모여 원만 불사가 될 수 있길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유치원은 2013년 12월 27일 부산시 서부교육청 교육환경 적합 평가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14일 유치원 설립 승인을 받았다. 2014년 4월 9일 공사 설계를 시작해 2015년 2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아 2016년 2월 시공회사로 ㈜대야건설, ㈜태성 인터내셔널을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부산 한마음선원 지원장 혜도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각 지원 지원장 스님 및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나눔으로 따스한 봄기운 전해요"

부산 불교계, 자비행 펼치며 훈훈함 더해

부산 불교계에는 불자들의 나눔 실천이 이어지며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하다.

부산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정초 21일 기도'를 회향하고, 자비나눔 실천으로 3월 1일 경내 법당서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천불정사는 이날 (사)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에 쌀 20kg 30포, 장전3동 동사무소에 쌀 20kg 20포를 각각 기부했다. 특히 생명나눔 부산본부에 기부된 쌀은 후원 환자 및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불정사 주지 고담스님은 "매 기도마다 나눔으로 그 공덕을 회향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며 "나눔 공덕에 아낌없이 동참해주는 신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재)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는 2월 25일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묘광선원에서 '2016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일념장학회는 부산대 의과대학생 1명을 비롯해 대학생 3명에게 각 100만원, 중 · 고등생 5명에게 각 30만원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 불교계가 나눔행을 실천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사진은 3월 1일 정초 21일 기도를 회향하며 쌀 전달식을 진행한 천불정사.

이날 이영채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남을 생각 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71년 신행활동과 인재불사를 위해 결성된 일념장학회는 경봉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성 불자들의 모임인 '일념회'가 그 시초다. 1995년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매년 15여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20여 년간 부산지역 학생에게 수여된 총 장학금은 1억 5000만 원 이상이다. 다음 달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해 보리암(주지 능원)은 3월 2일 진주 동명고 제65회 입학식에서 신입생 5명에게 각 100만 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주동명고는 주지 능원 스님의 모교다.

능원 스님은 이날 입학식 축사를 통해 "자신이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며 "부처님 유훈인 불방일(不放逸)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능원스님은 앞서 2월 17일 진주동명고 제62회 졸업식에서도 졸업생 3명, 재학생 7명 총 10명에게 각 1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하성미 기자

보현사신협, 자산 500억 원 달성

2월 26일 26차 정기총회서 밝혀…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 자산 500억 원을 달성했다.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성)은 2월 26일 대구 프린스호텔 2층 리젠시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는 보현사신협 이사장 지성 스님과 부이사장 원각(문종래) 등 직원 및 조합원 일동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2월 26일 대구 프린스호텔 2층 리젠시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성 스님은 우수 조합원으로 이종수(사업가)외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성 스님은 이어 진행된 기념사를 통해 "1987년 '대한불교 승가신용협동조합(가칭)' 창립총회가 개최된 후 30년이 된 지금, 자산 500억 원을 달성했다"면서 "이는 지역승가와 사부대중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 대중 살림에 더욱 보탬이 되는 보현사신협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2부 본회의 부의안건심의로는 2015년도 사업보고 · 2016년도 사업계획서 · 임원선출 등의 건이 승인됐다.

한편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1990년 8월 가칭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 이후 2000년 10월 자산 100억 달성, 2016년 500억 원 자산을 달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2년 전국가족찬불가 경연대회 개최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많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경찰들의 수행 이끄는 한해로"

3월 3일, 부산경찰청 경승단 회의

부산경찰청 경승단이 '2016년 경승단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3월 3일 부산지방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산경찰청 경승실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경찰청 경승단이 3월 3일 부산지방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2016년 경승단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정기법회 강화와 수행을 통한 경찰 포교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경승 총무 심산 스님은 "그동안 없었던 경찰 법회를 새롭게 만들고, 매달 2 · 4주 화요일 저녁 6시 법회를 봉행해 왔다"며 "경승 스님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다. 2016년에는 경찰 포교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경승실장 수불 스님은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경찰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경승 스님들과 경찰들이 서로 상생 · 발전하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 대보름 한마당 펼쳐

2월 24일 1000여 명 참석

대구 달서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2월 24일 청록공원에서 대보름맞이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은 2월 24일 청록공원에서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은 달서구 내 32곳 경로당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곡밥 대중공양, 윷놀이 한마당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학장 도경 스님과 홍지만 국회의원, 곽대훈 달서구청장 등과 1천여 명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복지관에 1,020만 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